

## 크루셜텍 (114120KQ | NR)

### 신사업으로 인한 강력한 Catalyst 등장!

- OPT(광마우스) 전문업체로 전세계 M/S 1위 영위중. OTP 채용률 증가로 올해 y-y 54% 출하량 증가 전망
- 3분기 창사이래 분기 최대 매출액 달성. 환평가 손실 제외 시 최대 영업이익 기록
- 신개념의 터치패널 개발 완료. 양산 성공 시 주가에 Catalyst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음

#### 전세계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OTP 업체

- 크루셜텍은 글로벌 OTP(Optical TrackPad, 광마우스) M/S 1위 업체로 전세계 시장의 95% 이상 독점하고 있으며, 국내는 삼성전자, LG전자, 팬택, 해외는 RIM, 모토로라 HTC 등에 주로 납품
- 지난해 1천만개/월 Capa는 올해 최대 2천만개/월까지 확대되었으며, 해외 피쳐폰 및 스마트폰의 OTP 채용률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6.5천만개 출하 기록 및 올해 1억개, 내년 1.4억개 출하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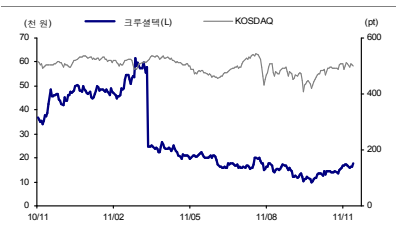
#### 3Q11 매출액 715억원, 영업이익 55억원 기록. 환평가손실 제외 시 영업이익 104억원

- 3Q11 매출액 715억원(+4.8% q-q), 영업이익 55억원(-24.6% q-q)으로 분기 최대 매출액 기록
- 3분기말 환율 급등에 따른 환평가 손실이 49억원 발생. 현재 수준의 환율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20억여원의 환평가 이익 더해져 4분기 영업이익 60억원 중후반대까지 가능할 전망

#### 신사업인 MS-TSP의 성공적인 양산 시 실적 및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

- 2011년 실적은 매출액 2,800억원(+34.6% y-y), 영업이익 280억원(+15.2% y-y) 전망
- 올해는 OTP가 채용되는 휴대폰의 시장 확대로 실적 호전 추세 지속 및 신사업 가시화
- 신사업인 MS-TSP는 슬림화, 경량화, 원가 절감형의 신개념 터치모듈로서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다음달 초 시제품 출시 예정. 한장의 ITO 필름에 한번의 패터닝으로 터치 모듈을 구현하여 기존 터치 모듈 대비 가격 경쟁력 충분하며, 고객사로 성공적 납품 시 실적 급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
- 삼성전자로 플래시 모듈의 탑재수 증가하고 있으며,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와 샘플 테스트 진행중
- 현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대비 PER 8배 수준으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상태

#### Stock Data



주가(11/22)	17,950원		
액면가	500원		
시가총액	415십억원		
52주 최고/최저가	26,400원/ 9,970원		
주가상승률	1개월	6개월	12개월
절대주가(%)	22.8	20.7	-15.3
상대주가(%)	18.6	15.0	-17.3

#### 경영실적

계산기(12월)	단위	2007	2008	2009	2010
매출액	(십억원)	5	43	62	208
영업이익	(십억원)	-1	6	7	24
영업이익률	(%)	-17.3	13.1	11.7	11.7
순이익	(십억원)	-3	4	8	21
EPS	(원)	-267	393	696	1,033
증감률	(%)	-897.3	-247.2	77.1	48.4
PER	(배)	0.0	0.0	0.0	46.1
PBR	(배)	0.0	0.0	0.0	0.0
ROE	(%)	-80.0	85.4	66.8	50.0
EV/EBITDA	(배)				14.7
순차입금	(십억원)	1	0	9	-1
부채비율	(%)	148.2	168.7	151.1	88.9

크루셀텍 | 신사업으로 인한 강력한 Catalyst 등장!

Compliance Notice |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내역

▶ Ratings System

구분	대상기간	투자의견	비고
[기업분석]	12개월	BUY(15% 초과) · HOLD(0%~15%) · REDUCE(0% 미만)	* 단,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최종분석 이전에는 긍정, 중립, 부정으로 표시할 수 있음.
[산업분석]	12개월	Overweight · Neutral · Underweight	

▶ Compliance
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당사는 공표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아닙니다.
- 조사분석 담당자는 공표일 기준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